

## 자신의 한계까지 올리는 노력이...



최영욱

- 충북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2019년도 5급 공채 일반행정직 합격

###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19년 5급공채 일반행정(전국) 직렬에 합격한 최영욱입니다. 5급 공채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합격수기를 많이 읽었던 것이 큰 방향을 잡고 마음을 다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의 수기 역시 많은 분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 II. 제1차시험 수험공부방법

#### 1. 개괄

PSAT 시험에 있어서 재능이 대부분을 결정한다고들 합니다.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자신의 재능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재능의 한계까지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고, 철저한 컨디션 관리와 시험장에서의 멘탈관리, 운을 통해 거기서 2~3문제를 더 맞히게 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공부방법을 개괄하자면, 1차 공부기간은 짧게 잡고, 학원강의와 강사 모의고사는 일절 풀지 않고, 전국모의고사는 연습차 참석하되 점수를 체크하지 않고, 기출문제 분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뛰어난 분들을 제외하면 첫 해에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내년에도 이 기출문제들을 봐야하고, 이 문제는 더 구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귀한 것이니까 기출문제가 낮익어지는 것을 경계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많은 분들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출문제가 다시 나오는 일도 결코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였고, 제가 틀린 원인을 분석해서 그 부분을 연습해야하지(ex-계산/독해 실수라면 꼼꼼하게 푸는 연습과 다짐, 시간/멘탈관리 문제라면 그러한 관리 연습) 그 문제를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 2. 공부방법

언어논리 과목의 경우 독해 부분은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논리 부분은 충분히 노력으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원 강의를 듣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논리학' 제목을 달고 나오는 대학 교재 단행본을 두 세권 정독하였습니다. 시간에 쫓기거나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한 책들의 중간부터 펼쳐서 'A, E, I, O'의 대당사각형이나,  $\sim(A \& B) = (\sim A \vee \sim B)$  와 같은 기술적인 전환과정만 보고 말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학 학부 수준의 논리학 교재를 정독하신다면 훨씬 더 얻는 것이 많으실 것이라 확신하고 언어논리에서 등장하는 논리 문제 정도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단순히 상식적 접근이 아니라 논리적 접근을 통해서 독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해석의 경우에 일반적인 말처럼 노력을 통해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역시

첫 두 해 정도에는 75~85 수준의 점수를 받았었는데, 언젠가 감을 잡고서는 90점 이상의 점수를 유지하였습니다. 감을 잡았다는 것은 스스로 접근 방법을 정확히 파악해 놓고서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것, 자료해석에서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실 정밀한 계산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등을 말합니다. 핵심은 계산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상황판단의 경우 떠도는 말과 같이 연습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다만 일정한 문제의 배열이 있으므로 푸는 순서를 확립하고, 스스로가 어느 부분에서 강하고 약한지를 잘 파악하여 강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맞히고 넘어가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연습을 주로 하였습니다.

헌법의 경우 헌법 도입 첫 해에 시험을 보았는데, 모든 수험생들이 헌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그런 정보에 휘둘리는 것이 싫어서 헌법을 아주 열심히 해놓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이 3년간 헌법을 사실상 프리패스로 만들어주어서 아주 잘 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7급 공무원시험 수험가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 중 한 분의 커리큘럼을 모두 따르고, 그 결과 7급 헌법 기출시험을 풀었을 때 95~100점이 나올 정도로 공부해 두었습니다.

## Ⅲ. 제2차시험 수험공부방법

### 1. 개 괄

합격 수기가 주로 막 진입하는 혹은 진입을 고려하는 분들께서 주 독자층임을 감안한다면, 2차시험 공부방법에 대한 너무 세세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큰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2. 경제학

저는 경제학이 주력과목이었는데, 접근방법은 단순하였습니다. 경제학은 행정법과 함께 출제 범위가 (비록 매우 넓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급공채 학원가에서 현재 가장 경제학 수강생이 많으신 두 선생님의 모든 문제를 2번씩은 풀었고, 틀리거나 잘 모르겠던 문제는 접어두고 다시 풀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총 4번 이상은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다보면 강사님들이 설명을 상세히 하지 않고 해설도 부실한 부분(ex-베이즈 내쉬균형, 슬러츠키 방정식)이 문제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머리를 싸매고 스스로의 푸는 방법을 정립하느라 몇 시간씩 매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과정 끝에 정해진 시험범위에서 하나씩 모르는 부분을 다 지워나가면 자신감도 더욱 생기고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생겨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 3. 행정법

행정법 역시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접근하였습니다. 약 200개 이상의 주제에 대해 빈틈없이 암기하고, 기출과 사례집에서 문제의 어떤 표현이 어떤 토픽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고, 답안지를 많이 작성하여 자신만의 정제된 표현을 연습하면 안정된 점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접근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또한 그러했듯 강사님들마다 학설

과 검토 등에서 차이를 보이시고, 특히 수업 중에 다른 강사님이나 교수님의 것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서 혼란이 오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로 다른 학설을 답안으로 작성하는 어느 강사님이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분명 고득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나서부터는 그런 혼란 없이 처음에 선택한 강사님의 접근을 모두 수용하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 4. 행정학

저에게는 행정학이 매우 약한 과목이어서 저의 공부방법이 고득점으로 가는 도움이 될지는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처럼 소위 '방어과목'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서나마 작은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학은 후술할 정치학만큼은 아니지만 경제학 및 행정법에 비해서는 범위가 막연하고, 상대적으로 체계가 혼란스러워 공부하는 데 큰 애로사항을 느끼는 과목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무엇보다도 정부 역할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입장에서 정부 내부의 입장을 책으로 배우려니 이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분립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관계, 정부 내에서도 단순히 조직도에 따른 부처 분리 개념이 아니라 조직/인사/재무의 기능적인 분리,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의 입장에 따른 분리와 그에 따른 각 기능 및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저는 공부할 당시에 이상의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고, 주력과목에 집중해서 평균점수를 끌어올리자는 접근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해하지 못하면 다 외워버리

자는 마음으로 접근하여서 서브노트를 만들고 다 암기하였고 50점 초반의 점수까지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 5. 정치학

정치학은 그 범위가 한정되지 않고, 읽을거리가 많아 투자시간이 매우 많이 요구되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비교정치'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어느 정도 출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버리면 안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정치와 정치철학, 국제정치와 정치경제로 나뉘는데, 여기서 가장 그 범위가 문제되는 것은 국제정치와 정치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정치는 가장 핵심적이고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지만 그 범위와 출제 유형의 한계가 있어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경제는 강사님들이 가볍게 넘어가서 또 불안한 측면이 있지만 그 범위가 넓지 않고 주제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철학은 플라톤부터 시작하여 현대의 다양성 문제와 페미니즘, 문명충돌 등 범위도 넓은데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대체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그에 대한 답안은 어떻게 써야할지 알 수도 없어서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정치 또한 비슷합니다. 강사님들이 강의에서 이런 것들을 모의고사로 낼 때도 겨우 그날 배운 개념을 다음날 문제에서 암기사항을 나열하게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도 수험생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학은 범위를 섞어놓고 무작위로 출제된 문제, 즉 기출문제를 연습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학은 매우 오래된

학문이고 이에 따라 기출문제 역시 행정학과는 대조적으로 트렌드보다는 변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더욱 강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넘쳐나는 분량 속에서 확실하게 답안 쓰는 법까지 연습할 부분과, 단순히 이해하고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부분 등을 구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 6. 선택과목(정보체계론/조사방법론)

처음 두 번은 정보체계론을 선택하였습니다. 우스개로 정보체계론은 정보도 없고 체계도 없다고들 하는데, 올바른 접근방법을 알면 충분히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접근방법이라 하면, 정보체계론에 대해 흔히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모조리 암기하고 그것들을 답안지에 뱉어내는 과목이라고 하는 잘못된 접근방법에 대비되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접근방법은 신기술을 접목하여 행정이 어떻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를 쓰는 과목이라는 접근입니다. 결국 '기술'은 양념에 불과하고 행정학과 동일한 과목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스스로가 행정학에서 요구하는 글쓰기에 약한 측면이 있어서 마지막 해에는 조사방법론으로 선택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조사방법론은 '사회과학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조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즉 본인이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등 사회과학 학문의 석/박사 과정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연구에 필요한 설문조사나 실험 등을 어떻게 해야 오류 없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내는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 전 여론조사를 할 때 우리는 질문 문항이 어느 정당에 편향되어서는 안 되고,

그 대상이 성별/연령을 골고루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조사방법론 역시 다른 선택과목과 비슷하게 학원가에 선택의 다양을 제공할 만큼 많은 강사님들과 강의가 존재하지 않고 서점에 가도 교과서 역시 그렇습니다. 기출문제와 모범답안 및 해설을 접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출문제를 보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 답 역시 단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상대적으로 큰 장애요소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 IV. 기타

### 1. 생활습관

평상시에는 아침 8시에 공부 시작해서 저녁 9시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흔히들 ‘순공’이라 하는 것은 재 본 적이 없습니다. 2차시험에 가까워졌을 때는 아침 6시 ~ 밤 11시까지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2년 간 피쳐폰을 썼다는 것과, 밥 먹을 때도 책을 가져가서 보면서 먹었다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피쳐폰은 날씨 확인이 안 되고, 자취하는 입장에서 금융생활 제약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마지막 몇 개월은 시간절약 측면에서 스마트폰으로 다시 바꾸기는 했습니다.

### 2. 스터디

스터디는 3년간 2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한 번은 중도하차 하였고, 한번은 친구 한 명과 단 둘이서 진행했던 것으로 사실상 스터디는 전혀 안 한 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새로 뭔가

를 알 수는 없겠다고 생각하였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강사님이나 교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훨씬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타인과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싫어서 스터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 같은 생각보다는 스터디가 강제성 측면이나 수험생활의 외로움 극복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견해를 가진 분들이 더 많으니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V. 나가며

동료들과 이야기해보시면 알겠지만,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누가 될지 누가 안 될지 어느 정도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합격합니다.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본인이 될 사람으로 보이는가 잘 생각해보시고 그렇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동료들이 2차시험 직전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나서 “이런 상태를 1년 동안 유지할 수만 있다면 진짜 1년 만에 합격하는 것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저 또한 3년째에 합격하고 나서 “작년에 이만큼만 더 열심히 했으면 1년 더 먼저 붙었을텐데!” 하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가끔 보이는 정말 빠르게 붙으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수험생활이 정말 고되고, 특히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돈도 벌면서 저녁에 여가생활까지 즐기는 친구들을 보면 마음을 다잡기가 힘들 때가 많은데 주변에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해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